

‘정치 1번지’서 ‘경제 1번지’로 ... 광주에 청년이 돌아온다

광주, 경제지도가 바뀐다

〈1〉 경제주도형 도시

이웃집 시장이 이르고 있는 민선 7기 광주시가 출범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신축되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는 광주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주 하면 당연시였던 ‘정치 1번지’라는 이미지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경제 1번지 광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 주도형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광주경제는 인공지능(AI) 중심 디지털 뉴딜,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하는 휴먼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이 견인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는 9월 문을 열게 되는 10만대 생산 규모의 완성차 공장이다. 23년간에 국내에 건설되는 광주형일자리 GGM자동차공장 공정은 현재 90%에 육박한다. 작간적 일자리만 1만여 개에 이른다.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윤섭 시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뽑은 올해의 광역단체장 우수정책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올해는 또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의 원년이기도 하다. 첨단 3지구에 들어서는 국가인공지능 융복합단지에는 2025년까지 4116억원(10년간 1조 원)을 투입해 국가데이터센터 등 AI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민선 7기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도 최근 개척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일보는 해를 맞아 올 한해 광주경제를 이끌 주요 사업을 5차례 분석·점검한다.



8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 일원에 미래 광주경제의 성장 축이 될 ‘광주 에너지 밸리 산단’이 조성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차 공장 신축 인공지능 중심도시 실현 원년 국가 AI 데이터 센터 착수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본격 업무 민선 7기 경제 부문 큰 성과

이윤섭 시장은 8일 “광주는 2020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을 선점하면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도시 실현이라는 담대한 도전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며 “인공지능 기반 광주형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1년을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강조하는 ‘광주형 3대 뉴딜’은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뉴딜과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하는 휴먼 뉴딜로 압축된다.

3대 뉴딜 중 핵심은 인공지능 중심 ‘광주형 디지털 뉴딜’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하고, 인공지능 중심으로 ‘광주형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국가 AI 융복합단지’와 세계적 성능의 그래픽 처리장치(GPU) 기반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착공한다.

광주시는 지난 4일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착수식을 갖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라는 목표를 향해 달을 올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광주 국

가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으로,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형 3대 뉴딜 중 또 다른 핵심축은 AI-그린뉴딜이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력 전량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 2035년까지 광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광주 RE 100’을 실현할 계획이다.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자리 잡는 게 최종 목표다. 이는 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 시기로 설정한 2050년보다 5년이나 앞선 계획이다.

이제는 광주경제를 상징하는 고유 명사가 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올해 당장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시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휴먼뉴딜을 적극 추진중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노사상생형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 건설은 현재 공정률이 85%다.

오는 4월 시운전을 거쳐 9월부터 10만대 완성차를 생산하게 된다.

이윤섭 시장은 “민주-인권-평화, 그리고 정의의 도시 광주에 풍요를 더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소명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영골프장 잔여지 토지 용도 변경 절차 중단하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남은 부지 공원으로 만들어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광전노협)는 8일 성명을 내어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중단하라”고 나주시에 촉구했다.

부영주택 특혜, 혁신도시 정주 여건 악화 등 개발 계획안을 둘러싼 광주·전남 시민사회의 비난 여론을 재확인하면서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단체 입장을 밝혔다. 부영주택과 나주시에는 “혁신도시에 부영이 소유한 미개발 아파트 용지(13만㎡·약4만평)를 개발한 뒤에나 골프장 잔여지 개발을 운운하라”고 지적했다.

광전노협은 이날 성명에서 “나주시가 (부영주택 요청을 받고) 진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 녹지 지역을 풀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녹지를 풀어 혁신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면 도시 전체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나주시가 의견청취를 하는 방식으로 부영 골프장을 아파트로 변경할 경우, 혁신도시 녹지 37만여㎡가 줄어들게 된다”며 “혁신도시 전체 공원·녹지 면적은 35.1%에서 25% 이하로 축소되고, 아파트 역시 5328세대가 추가돼 도시 아파트 공급은 기존보다 30%나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한 수준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도시 개발로 교통, 교육, 환경 등에 부정적 문제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나주시를 겨냥해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한 골프장과 넓은 공원·녹지를 미끼로 공공기관 직원이나 주 이주를 홍보했던 게 나주시”라며 “(골프장 잔여지 대단지 아파트 건설은)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광전노협은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 변경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잔여 부지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조성을 우선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만약 잔여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만 한다면 특히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을 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줄어드는 부지만큼 대체 공원·녹지 또는 체육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를 위해 광주시 등이 시행 중인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등 제도를 도입해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광전노협은 부영골프장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 부영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혁신도시 아파트 부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지은 후 용도 변경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부영주택이 소유한 13만㎡ 규모의 미개발 아파트용지를 우선 개발하고 나서 필요할 경우 골프장 토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라는 비판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영암·화순 코로나 연쇄 감염 ‘변이 여부’ 조사

전남도, 질병청에 검사 의뢰 신속 PCR 검사 도입 검토키로

전남도가 지난 1월 영암·화순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례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의뢰했다. 광주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8일 “지난 1월의 영암·화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영암 연쇄 감염은 사찰인 관음사와 인근 마을, 고구마 농장을 중심으로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다. 화순 연쇄 감염은 사평면사무소를 중심으로 6공무영 등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두 사례 모두 감염 속도가 빨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나주 거주 시리아인들도 첫 확진 이후 불과 하루 이틀 새 가

속간 감염이 확인돼 타 사례와 비교해 전파속도가 매우 빨랐다.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거주 시리아인 가족 4명 중 1명(전남 609번)은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들에게서 감염돼 치료 후 퇴원한 609번의 조카(613번) 등 가족 4명의 경우 613번 확진자의 검체를 보내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는 영암 감염 사례의 경우 4명, 화순 사례는 2명의 검체를 질병관리청에 보내 변이 검사를 의뢰했다. 코로나 19 검사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현재 질병관리청만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평 세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마해동)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명대로 516(수현동)
소문 세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이원대로 603(백갈 20(소문동))
수원 세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로46호 520(수원동)

장부 표명: 연비 및 등급
E 220 4 AMG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도신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도신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2도신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2도신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연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